『대당삼장취경시화』 연구

이시찬*

<目　次>

1. 들어가는 말
2. 형태 분석
   1) 詩話에 대한 개념 정립
   2) 說經의 분류와 계승 문제
3. 내용 분석
   1) 서사의 구성
   2) 등장인물의 특징
4. 나오는 말

1. 들어가는 말

중국 고전 장편소설이 형성되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 형식과 내용이 어느 특정 시기 특정 작가에 의해 단독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시대에 걸쳐 많은 사람들에 의해 다양한 장르적 특징을 흡수하면서 집적되어 완성되어 왔다는 것이다. 『서유기』 또한 예외는 아니다. 주지하다시피, 明代 吳承恩에 의해서 완성되었다고 알려진 『서유기』는 唐代 玄奘법사가 서역으로 불경을 구하러 가는 역사적 사실에서 이야기의 서막이 시작된다. 현장 본인은 약 17년에 걸쳐 구법활동을 하는 동안 100여개의 나라를 지나며 보고 겪은 것들을 토대로 『大唐西域記』를 저술했다. 그리고 현장의 제자들은 다시 스승에게 보고 들은 내용을 토대로 『大慈恩寺三藏法師傳』을 저술했다. 이 두 저술은 모두 현장이 직접 겪은 일들을 주로 기록

* 청주대학교 인문학부 동양어문전공 부교수

www.kci.go.kr

했기 때문에 소설적 성격보다는 견문록의 성격이 강하며, 후자는 특히 종교적 성격이 다분하다. 따라서 환상과 모험을 바탕으로 동물과 각종 요괴들을 등장시켜 이야기를 끌어가는 허구적인 소설과는 장르적인 측면에서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大唐三藏取經詩話』[1]는 허구적 내용을 바탕으로 그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후대의 잡극이나 명대에 완성된 소설 『서유기』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근원을 연구할 때 가장 중요한 문헌이 된다.

현재까지 남아 있는 『취경시화』의 판본은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小字本으로 표제어가 『大唐三藏取經詩話』로 되어 있으며, 上・中・下 3卷으로 모두 17節[2]로 구성되어 있다. 上卷은 제1절이 빠져 있고, 中卷에는 제7절의 결미 부분과 제8절의 전반 부분이 빠져 있다. 원래 일본 高山寺에서 소장하고 있다가 후에 大倉喜七郎에게 귀속되었다. 나머지 하나는 大字本으로 표제어가 『新雕大唐三藏法師取經記』로 되어 있으며, 一・二・三卷으로 나누어져 있다. 第一卷은 1・2・3절이 빠져 있고, 第三卷은 전체가 빠져 있어 남아 있는 부분이 전체 분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대자본 역시 일본 高山寺에서 소장하고 있다가 후에 德富蘇峯의 成簣堂文庫로 귀속되었다.[3]

『취경시화』가 발견된 이후 지금까지 이미 반세기가 지났으나 학계에서는 이 책에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다. 중국의 경우 1982년 李時人과 蔡鏡浩 두 학자가 「『大唐三藏取經詩話』成書時代考辨」이라는 논문을 발표하고, 1989년 張錦池가 관련 논문을 지속적으로 발표하면서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1997년 中華書局에서 새로운 교감본이 나오면서 그 연구는 활발해져서 2018년 현재까지 약 60여 편의 관련 논문이 발표되었다.[4]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관련 연구가 매우 미진하

1) 이하 『大唐三藏取經詩話』를 『취경시화』로 약칭하기로 한다.
2) '節'이란 명칭은 원래 판본에 있던 명칭이 아니며 후대의 王國維가 편의상 붙인 것이다.
3) 1955년 文學古籍刊行社가 羅振玉이 影印한 소자본과 대자본을 하나로 묶어 다시 책으로 출간했으며 그때 제목을 『大唐三藏取經詩話』로 했다. 李時人, 蔡鏡浩 校注, 『大唐三藏取經詩話校注』, 中華書局, 1997년, 1쪽 참고.
4) 중국의 CNKI 온라인 학술논문 검색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이다. 본고에서는 지면의 제약으로 인해 중국 학계의 선행 연구 결과를 거의 소개하지 않고, 『취경시화』를 교감한 李時人, 蔡鏡浩의 분석을 주로 참고하고, 또 그들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중심으로 논문을 진행했음을 밝힌다. 60여 편의 관련 논문 또한 이들의 주장과 관련하여 『취경시화』의 成書

www.kci.go.kr

다. 2018년 현재까지 『취경시화』 텍스트 자체를 연구주제로 삼은 학술논문은 전무한 상태이다. 단지 중국문학사와 소설사에서 『서유기』를 소개할 때 그 계승 관계를 짧게 언급할 뿐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취경시화』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크게 형태와 내용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는 주로 서사의 형식 및 장르와 관련한 형태 분석이다. 우선 제목에 보이는 '詩話'와 관련하여 중국문학사에서 일반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詩話體와의 차이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중국소설사의 관점에서 詩話라는 말이 지니는 의미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그리고 현재 중국에서 출간된 소설 관련 학술서적을 보면 『취경시화』를 宋代 說話四家 가운데 '說經'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李時人과 蔡鏡浩 두 학자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관련 서적과 연구를 참고하여 필자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둘째는 『취경시화』의 내용적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취경시화』의 서사가 어떤 흐름으로 전개되는지 구조적인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上・中・下 3권과 그에 해당되는 각 절의 내용들이 어떤 구조적 특징을 지니는가를 도표와 줄거리를 통해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 등장하는 인물의 특징을 분석하여 명대에 간행된 소설 『서유기』와의 계승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취경시화』에는 玄奘은 물론이고 손오공과 사오정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猴行者'와 '深沙神'에 대한 묘사가 여러 곳에 보인다. 여기에 최초로 등장하는 인물들의 특징과 성격을 분석함으로써 명대 소설 『서유기』의 인물들과의 근원적 상호관계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문제와 인물 연구에 주로 집중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www.kci.go.kr

2. 형태 분석

1) 詩話에 대한 개념 정립

위에서 밝혔듯이 현존하는『취경시화』의 판본에는 나진옥이 1916년에 일본에서 영인한 소자본과 1917년에 영인한 대자본 두 종류가 있다. 소자본의 제목은『大唐三藏取經詩話』라고 되어 있고, 대자본은『新雕大唐三藏法師取經記』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문체와 관련하여 소자본의 표제어인『大唐三藏取經詩話』에 보이는 '詩話'라는 두 글자로 인해 일차적인 오해가 생길 수 있다. 즉 제목만 가지고 볼 때 이 작품의 장르 또는 문체가 곧 중국문학사에서 일반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詩話'라는 잘못된 인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오류라고 할 수 있다.『취경시화』에 표제어로 사용된 '詩話'는 어디까지나 중국소설사적 전통과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이에 필자는 '詩話'라는 단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일차적 오해를 방지함과 동시에 그 실체적 정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분석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詩話'는 중국문학사의 범주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송대 歐陽修가 저술한『六一詩話』에서 시작된 문학 장르를 지칭하는 말이다. 즉 중국문학사를 비롯한 동아시아의 한문학사에서 '詩話'는 구양수 이후로 하나의 장르로 자리를 잡으면서 시 비평의 새로운 형태로써 근대 초기까지 이어졌다. '詩話'라는 이름을 갖기 전에 이러한 장르로써의 전통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위진남북조 시대 劉勰의『文心雕龍』과 鍾嶸의『詩品』및 唐代 皎然의『詩式』등을 들 수 있다. 또 구양수 이후로는 司馬光의『溫公詩話』, 陳師道의『後山詩話』, 嚴羽의『滄浪詩話』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문학 장르로써 '詩話'는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시에 관한 이야기와 비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형식이나 내용에는 특별한 구속이 없으며 글쓴이가 자유롭게 써내려갈 수 있다. 이를 두 가지로 나누자면 작품의 비평에 해당하는 '論詩'와 시의 배경 이야기나 관련 일화 등을 주로 다루는 단편 '記事'로 분류할 수 있다.

www.kci.go.kr

『취경시화』는 비록 '記事'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총 17절에 이르는 각각의 단편이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허구적인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중국문학사에서 지칭하는 '詩話'와는 분명 다른 형태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또한 텍스트에 등장하는 詩는 서사의 일부분으로 기능하며 주로 작중 인물의 입을 통해서 전달된다. 따라서 『취경시화』의 형태적 특징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표제어로 사용된 '詩話'라는 말이 중국문학사에서 다루는 장르로써의 '詩話'와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소설사에서 다루는 화본소설과 관련하여 『취경시화』를 하나의 문체로 다루는 시각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실제로 胡士瑩은 그의 역작인 『話本小說概論』에서 '話本與詩話'라는 소제목을 달아 이 작품의 서술 방식 가운데 '시로써 이야기를 대신한다.(以詩代話)'는 특징을 꼽아 『취경시화』를 '詩話體' 소설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明代에 간행된 『淸平山堂話本』에 수록된 「張子房慕道記」와 「快嘴李翠蓮記」가 이를 계승한 '詩話體' 계열 소설이라고 분류하고 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들 작품은 모두 작중 인물이 중간에 직접 詩를 읊고 있고, 그것이 이야기의 전개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기 때문에 이들을 따로 話本體 소설로 분류해야한다는 것이다.[5] 그러나 필자의 견해로는 詩 또는 詞와 같은 운문이 작품 속에서 서사의 일부분으로 기능하는 작품은 대다수 화본소설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취경시화』를 모태로 하는 또 하나의 문체로써 '詩話體'를 규정짓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모두 『大唐三藏取經詩話』의 표제어에 있는 '詩話'라는 두 글자에서 비롯된 오해 내지는 선입견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하물며 『취경시화』의 또 다른 판본인 대자본 『新雕大唐三藏法師取經記』는 표제어 속에 '詩話'라는 글자가 없다. 이것은 바로 '詩話'가 문체나 장르로써 원서 제목의 고정적 형식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 그리고 현재 발견된 자료에 의하면 표제어 가운데 '詩話'라는 이름이 포함된 통속문학작품은 『취경시화』한 종류밖에 없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우리는 『취경시화』의 표제어로 사용된 '詩話'라는 말을 받아들일 때 중국 고대소설의 가장 두드러진 형태적 특징으로써

5) 胡士瑩 著, 『話本小說概論』, 中華書局, 1980년, 169-173쪽 참고.

www.kci.go.kr

운문과 산문이 교차하는 형식인 '韻散結合'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주지하다시피 唐代 傳奇에서 시작하여 明淸 章回小說에 이르기까지의 많은 작품을 보면 운문과 산문이 교차하며 서사가 진행된다. 그 가운데서도 화본소설은 詩가 도입부부터 결말에 이르기까지 삽입되는 필수적 요소로 기능한다.[6] 따라서 우리는 『취경시화』의 표제어로 사용된 '詩話'를 중국 고대소설의 특징 가운데서도 화본소설의 대표적 문체적 성질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취경시화』로 인해 宋元話本 가운데 마치 독립된 별개의 문체로 '詩話體'가 따로 존재한다는 듯한 관점은 배제시키는 것이 고대 중국소설의 전개 과정을 이해하는 데 합리적이라고 본다.

2) 說經의 분류와 계승 문제

형태적 특징과 관련하여 두 번째로 짚어봐야 할 것은 바로 『취경시화』를 宋代에 유행한 이른바 '說話四家'의 분류 가운데 '說經'에 귀속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

6) 唐代 소설집인 裴鉶의 『傳奇』에는 31편의 단편 소설이 수록되어 있다. 그 가운데 약 2/3에 해당하는 20편의 작품에 운문인 詩가 삽입되어 있는데, 이로써 중국 고대소설에 시가 본격적으로 삽입되는 형식은 唐 傳奇로부터 시작됨을 알 수 있다. (최진아가 풀어쓴 『전기』,푸른숲, 2006년, 참고) 또 중국소설의 원류를 『山海經』을 대표로 하는 신화적 서사와 사마천의 『史記』와 같은 역사적 서사에서 찾는다. 그런데 신화적 서사의 전통을 잇는 志怪小說에서는 시적 전통을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역사적 서사의 전통을 잇는 『사기』에서는 시가 삽입되는 형식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기』의 「項羽本紀」에 삽입된 「垓下歌」이다. 항우와 유방의 대결에서 한신의 군대에 쫓긴 항우는 결국 垓下에서 최후의 순간을 맞이한다. 이때 항우는 비분강개하며 스스로 시를 한 수 읊게 된다. "힘은 산을 뽑고, 기세는 세상을 덮을 만했네. 때가 되어 불리하니 騅馬마저도 가려하지 않네. 騅馬가 가지 않으니 난들 어찌할 것인가. 虞 미인이여 虞 미인이여 너를 어찌하면 좋을까." (力拔山兮氣蓋世, 時不利兮騅不逝. 騅不逝兮可奈何, 虞兮虞兮奈若何.) 실제로 너무도 유명한 이 역사이야기에서 항우가 직접 지었다고 되어 있는 「垓下歌」의 서사적 역할은 매우 지대하며, 그 전통은 중국 고대소설의 가장 큰 특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이 이야기에서「垓下歌」가 빠진다면 미적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들 정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소설 속에서의 시적 삽입 전통은 話本小說에서 아예 정형적인 틀로 자리 잡게 되며 그것은 명청 시대의 화본소설과 장편 장회소설에 모두 계승된다. 특히 화본소설에서는 도입부에 삽입되는 시를 '入話詩'라 하고, 이야기의 끝에 삽입된 시를 '結尾詩'라고 규정짓고 있다. 『취경시화』의 표제어에 보이는 '詩話'는 바로 이러한 중국 고대소설의 시적 전통을 명확하게 드러낸 상징적인 제목이라고 할 수 있다.

www.kci.go.kr

제이다. 과거 중국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이미 다수의 학자들이 관련 서적에서 『취경시화』를 '說經'으로 분류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최근에 『취경시화』를 校注한 李時人 등은 「大唐三藏取經詩話成書時代考辨」이라는 논문과 『취경시화』의 서문을 통해 이와 견해를 달리하며 새로운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이들의 핵심 주장은 『취경시화』 텍스트의 언어적 특징 및 몇 가지 상황을 분석한 결과 이 텍스트는 근본적으로 宋代에 만들어진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宋元 시기 사람들이 분류한 '說經'의 내용과 형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의 핵심적 주장을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노신과 같은 권위 있는 학자들이 宋元 시기의 도시 필기류 문헌들을 근거로 해서[7] '說經'이 '說話四家' 가운데 하나라는 견해에 모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취경시화』라는 문헌을 이해하는 데 일차적인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8] 즉 송대의 '說話四家' 중에 '小說'·'說鐵騎兒'·'講史' 등은 그 내용과 형식이 구체적인 작품을 통해 실증적으로 합당한 설명이 가능하지만 '說經'의 내용과 체제는 구체적 작품이 언급되지 않아 따로 그 형태적 특징을 확인할 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취경시화』를 '說經'으로 분류하는 것은

7) 송원 시기의 도시필기류는 일반적으로 孟元老의 『東京夢華錄』, 灌圃耐得翁의 『都城紀勝』, 西湖老人 『繁勝錄』, 吳自牧의 『夢粱錄』, 周密의 『武林舊事』를 가리킨다. 이들 도시필기류는 대부분 당시의 도시 문화와 관련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8) 王國維·魯迅·孫楷第·王古魯·譚正璧·趙景深·陳汝衡·胡士瑩 등의 학자들은 '說話四家'에 대한 분류법에 대해서는 약간씩 이견이 있지만 '說經'이 '四家'의 하나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한다. 胡士瑩은 『話本小說概論』에서 이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도표를 이용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家數 / 論者	烟粉	靈怪	傳奇	公案	鐵騎	說經	說參請	講史	合生	商謎	說諢話
王國維 胡懷琛	1					2	3	4			
魯迅(甲) 嚴敦易	1					2		3	4		
孫楷第	1					2		3	4		
魯迅(乙)	3					2		1			4
趙景深	1					2		3			4
譚正璧(甲)	1					2		3		4	
譚正璧(乙)	1				2	3	4				
陳汝衡	1			2		3		4			
王古魯	1				2	3		4			

www.kci.go.kr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둘째, 陳汝衡이나 程毅中과 같은 학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각각『宋代說書史』와『宋元話本』과 같은 저술을 통해『취경시화』가 '說經'이라는 점을 더욱 강하게 주장했는데, 그들 역시 '說經' 話本으로 예를 든 것은『취경시화』한 작품일 뿐 그 밖에 다른 사례를 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셋째, 송대 도시필기류 문헌에는 '說經'을 '演說佛書'[9]라고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佛經과 관련이 없는『취경시화』를 '說經'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취경시화』는 현장법사가 불경을 구하러 가는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지만 그것은 단지 한 인물이 운명적으로 조우한 경험을 중심으로 삼고 있을 뿐 불교 경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演說佛書'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南宋 시기에는 '說經' 이외에도 '說諢經'이라는 종류가 따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불경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작품들은 따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상의 몇 가지 이유를 근거로 李時人 등은 '說經'은 南宋 사람들이 처음 만든 장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오히려 燉煌에서 발견된 '講經文'과 같은 선상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10]

그러나 張錦池가『西遊記考論』에서 분석한 내용과[11] 더불어 필자의 재분석에 의하면『취경시화』를 宋元 시기 도시필기류 문헌에서 분류한 '說經'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李時人 등의 주장에 대한 반론의 근거는 대략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두 학자가 '說話四家'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三敎思想'에 대한 분석이 생략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說話四家'를 대표하는 각각의 구체적 텍스트 분석해보면 그 분류체계의 바탕에 儒敎와 佛敎 및 道敎라는 사상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두 학자가 이를 간과한 원인은 우선 宋元 시기 도시필기류 문헌을 분석해 보면 '說經'에 대한 설명이 다른 장르에 비해 매우 소략하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또 해당 시기에 각 장르별로 유행하는 구체적

9) 耐得翁,『都城紀勝』「瓦舍衆伎」: "說經謂演說佛書."; 吳自牧,『夢粱錄』「小說講經史」: "談經者, 謂演說佛書."

10) 李時人, 蔡鏡浩,「大唐三藏取經詩話成書時代考辨」,『大唐三藏取經詩話校注』附錄二, 58-85쪽 참고.

11) 張錦池 著,『西遊記考論』, 北京, 黑龍江敎育出版社, 1997년, 3-55쪽 참조.

www.kci.go.kr

작품 제목을 나열한 『醉翁談錄』에도 '說經'과 관련된 작품은 전혀 언급되지 않은 점도 『취경시화』의 귀속 문제에 대한 판단을 어렵게 만든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역설적으로 송대 사상사의 주요 담론이 소설계에서도 불교에서 유교와 도교로 넘어갔다는 것을 반영한다.[12] 물론 宋元 시기에 유행한 서사문학 가운데 '講經'과 같은 불교 고사도 일부 존재하긴 했지만 당시 시대 상황을 강하게 반영한 '講史'와 세속적 재미와 교훈을 동시에 선사하는 '小說'이 주류가 되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가령 『都城紀勝』·『夢粱錄』·『醉翁談錄』에서 정의하고 있는 '講史'는 모두 『通鑑』을 비롯한 전대의 문헌에서 전쟁의 흥패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가리키고 있다. 그리고 그 주제사상은 역시 역사 이야기 속에서 忠과 義라고 하는 주제의식을 주로 선양하고, 아첨하고 간사한 무리들을 꾸짖고 배척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三敎 가운데 당연히 儒敎의 이념에 해당한다. 羅燁은 『醉翁談錄』의 서문에 해당하는 「小說開闢」에서 張浚·韓世忠·劉錡·岳飛 등 宋代의 충신들을 거론하며 다음과 같이 덧붙이고 있다.

> 나라의 역적과 간신배와 방종하고 아첨하는 무리들을 이야기해 어리석은 백성들을 분노하게 하고, 충신의 억울한 원한을 이야기해 무쇠 심장을 가진 사람이라도 눈물을 흘리게 한다.[13]

南宋은 이민족에 의해 남쪽으로 밀려난 피난 정권으로 당시 백성들에게 忠義 사상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었다. 宋元 시기에 출현한 대표적 講史類 작품인 『新編五代史平話』·『武王伐紂平話』·『三國志平話』 등에서도 이러한 주제사상은 여실히 드러나 있다.

羅燁은 또 宋代의 小說類를 '靈怪'·'煙粉'·'傳奇'·'公案'·'朴刀'·'捍棒'·'妖術'·'神仙' 등으로 세분하고 그 아래에 구체적 작품을 나열했다. 그런데 그 작품명

12)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대표적으로 唐代 韓愈와 같은 유학자로부터 비롯된 '排佛論'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排佛사상은 南宋시기의 朱熹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상층부에서의 불교는 갈수록 세력이 약화되었고, 서민이 즐기는 문화시장에서도 佛經 자체를 연행하는 것 또한 그만큼 쇠퇴를 거듭한 것이다.

13) 羅燁 著, 이시찬 옮김, 『醉翁談錄』, 서울,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1년, 33쪽.

www.kci.go.kr

들을 분석해 보면 불교와 직접 관련된 작품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이 가운데 '靈怪'·'妖術'·'神仙' 등으로 분류된 작품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道敎적 색채가 농후하다는 사실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羅燁이 제시한 백여 개의 작품명을 보면 당시 소설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것들은 불교적 세계관을 담은 작품이 아니라 대부분 유교와 도교의 세계관을 담은 것들로 요약될 수 있다. 『취경시화』는 분명 송대 도시필기류 문헌에는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사상사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 작품이 小說類나 講史類에 편입될 수 없는 사실은 분명하며, 당시에 유행한 '說話四家'의 분류법으로 귀속시키자면 說經類가 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宋代인들의 분류의식 속에서 小說類는 주로 괴이하고 신비함을 추구하는 도교적 색채가 농후한 서사 장르가 주류를 이루고, 講史類는 忠義를 강조하는 유교적 주제의식이 강하게 반영된 장르라고 할 수 있다. 그와 대조적으로 『취경시화』는 분명 불교적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講經類로 귀속시키는 것이 당시 실정에 부합한다.

둘째, 李時人 등은 宋代 도시필기류 문헌에서 說經을 정의한 '演說佛書'라는 구절을 '演說佛經'으로 축소 해석했다는 의구심이 든다. 『金剛經』·『法華經』·『維摩詰經』과 같은 佛經은 당연히 '佛書'에 포함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歷代三寶記』·『高僧傳』·『大慈恩寺三藏法師傳』 등의 불교 事跡을 담은 서적 또한 '佛書'에 포함된다. 宋元 시기에 앞서 唐代에 불교 사원에서 성행한 '俗講'은 대중을 상대로 한 포교와 오락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장르이다. 그리고 '俗講'은 후대로 갈수록 그 제재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갔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俗講'의 형식 가운데 하나인 '經變'과 '變文'은 송대에 '說經'으로 발전했다. 즉 '說經'은 唐代의 '寺院文學'이 宋元의 '瓦舍文學'으로 흡수되어 발전한 장르인 것이다. 따라서 宋元시기의 '說經'은 다른 장르와의 경쟁에서 종교적인 면에 중점을 둔 불경을 연행하던 것으로부터 제재의 확장에 중점을 둔 불교의 다양한 事跡에서 그 활로를 찾았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그 제재를 불교 事跡으로 확장한 이야기들은 그 서사적 재미가 당시 세속 시민들의 오락적 요구에 부합되는 면이 있어 후세에 진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취경시화』가 그 대표

www.kci.go.kr

적 서사라고 할 수 있다. 『취경시화』는 특정 불교 경전과 관련해 서사가 진행되지 않지만 넓은 의미에서 佛書에 해당하는 『大慈恩寺三藏法師傳』이나 『續高僧傳』 제4권에 수록된 「玄奘傳」 등과 직접적인 계승 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說話四家' 가운데 '說經'으로 분류되는 것은 매우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셋째, 李時人 등은 '說經'과 '說諢經'의 차이점을 인식하는 데서도 일부 편견이 있는 듯하다. '說經'과 '說諢經'의 대표적 차이점은 위에서 일부 언급했다시피 해당 이야기가 불교 경전 또는 서적 전반에 근거를 두고 불법을 전파하려는 주제 의식이 담겨있는가의 여부이다. 그런데 '說諢經'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불교 경전이나 사적에 해당 인물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 내용 또한 세속적인 재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 대표적인 작품으로 「五戒禪師私紅蓮記」·「明悟禪師赶五戒」·「花燈轎蓮女成佛記」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작품의 내용을 살펴보면, 비록 어느 정도 불법을 숭상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긴 하지만 승려와 여인의 세속적인 애정 관계에 대부분의 이야기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진정한 불법의 전파와는 다소 괴리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작품을 '說經'에 귀속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따로 '說諢經'으로 분류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즉 '說諢經'으로 따로 분류한 작품들은 '演說佛書'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반면 『취경시화』의 내용은 현장법사 개인의 경험과 손오공과 사오정의 전신인 猴行者와 深沙神 등의 행적이 주가 된다. 일면 불경의 내용 및 불법을 전파하려는 의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전체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결말에 해당하는 下卷 「入竺國度海之處第十五」와 「轉至香林寺受心經處第十六」 두 편에서 『心經』·『多心經』·『般若心經』과 같은 佛經을 중심으로 서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취경시화』를 통해 『般若心經』과 그 사상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실제로 현장법사를 전후로 해서 『般若心經』은 중국 불교의 핵심 경전으로, 또 반야사상은 중심사상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건대, '演說佛書'에 해당하는 『취경시화』는 어디까지나 '說經'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www.kci.go.kr

3. 내용 분석

1) 서사의 구성

『취경시화』는 크게 상・중・하 3권으로 나누어져 있다. 필자는 우선 상・중・하 3권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각의 내용적 특징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唐代에 이미 저술된『大唐西域記』는[14]『취경시화』와 깊은 관련이 있는 서적으로 현장법사가 天竺에 이르기까지 거친 여러 지역과 개인적 경험의 일부가 포함된 지리서적 성격이 강하다. 또『大慈恩寺三藏法師傳』역시 약간의 허구가 섞여 있지만 대체로 역사적 서사에 가깝다. 반면『취경시화』는 唐代 사원에서 행해지던 俗講의 전통을 계승하여 승려들보다는 일반인들에게 소설적 서사로 다가간 작품이다. 그러면『취경시화』에 열거된 목차와 그 주요 내용을 上・中・下로 나누어 도표로 정리하여 서사의 구조적 특징을 살펴보기로 하자.

목차		주요 내용
上卷	〔題原缺〕第一	알 수 없음.
	行程遇猴行者處第二	현장법사가 猴行者와 조우하게 되고, 猴行者가 간단하게 자신을 소개한다.
	入大梵天王宮第三	猴行者가 법사의 전생에 대해 언급을 하더니 이내 법술을 부려 순식간에 일행을 梵天王宮에 이르게 한다. 법사는 환대를 받고 불경을 강연한 후 범천왕으로부터 앞으로 고난에 유용하게 쓰일 세 가지 法寶를 받는다.
	入香山寺第四	猴行者의 안내와 보호 속에 사나운 짐승과 뱀이 가득한 蛇子國을 무사히 지나간다.
	過獅子林及樹人國第五	獅子林을 거쳐 樹人國을 지나던 중 일행 중 어린 행자가 먹거

14)『大唐西域記』는 貞觀 20년에 약 1년에 걸쳐 玄奘이 그의 제자 辯機와 함께 직접 저술한 책이다. 唐은 당시 突厥을 비롯한 서역의 여러 민족들과 대치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太宗은 몸소 서역을 가로질러 인도까지 갔다 돌아온 현장법사의 견문 내용은 더할 나위 없는 외교적 정보였다. 이를 간파한 현장은『대당서역기』를 저술하여 직간접적으로 보고 들은 여러 지역의 지리와 풍토, 기후를 비롯해 그곳의 역사와 전설 및 신화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기록하여 바쳤다. 태종은 그의 공을 인정하여 불경 번역사업을 적극 지원하였고, 현장은 약 20년에 걸쳐 대승불교의 근본 사상을 설파한『大般若波羅蜜多經』을 비롯해 약 1335권에 이르는 방대한 불경을 번역했다.

www.kci.go.kr

		리를 구하러 갔다가 요괴를 만나 당나귀로 변했으나 猴行者의 신통한 능력으로 위기에서 벗어난다.
	過長坑大蛇嶺處第六	여인으로 변신한 白虎精 요괴를 만났으나 猴行者가 술법대결에서 이기고 위기에서 벗어난다.

현재 『취경시화』의 제1절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문이 결여되어 있다. 그러나 『취경시화』의 전후 맥락을 유추할 수 있게 해주는 唐代의 『大慈恩寺三藏法師傳』을 살펴보면 제1절의 내용은 대략 현장법사의 내력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더불어 태종의 명을 받들어 서역으로 떠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우선 『大慈恩寺三藏法師傳』의 제1권에는 현장의 출생부터 西天으로 불경을 구하러 가기까지의 과정이 소개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황제가 허락하지 않자 모두 물러났지만 오직 玄奘만은 굴하지 않고 떠났다는 식으로 서술되어 있다.[15] 그러나 『취경시화』의 내용을 보면 여러 곳에서 현장 자신은 太宗의 勅命을 받들어 西天으로 간다고 언급하고 있어 역사적 사실이 소설적 허구로 바뀐 단면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明代 天一閣 鈔本인 『錄鬼簿』에 元 吳昌齡의 작품으로 『西天取經』이란 작품명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 題目은 「老回回가 東樓로 가서 부처를 부르다(老回回東樓叫佛)」이고, 正名은 「唐三藏西天取經」으로 되어 있다.[16] '回回'는 人名인데 吳昌齡 雜劇의 佚曲으로 알려진 또 다른 작품을 보면「回回迎僧」이라는 부분이 있고, 여기서는 바로 현장이 서역으로 떠나려 하자 제후들이 모두 전송을 하였다는 대목이 있다. 이처럼 관련 문헌들의 기록으로 전후 관계를 살펴볼 때 생략된 제1절의 내용은 현장 자신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그가 당나라를 떠나 장차 서역으로 향하는 출발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제2절에서 제6절까지의 서사는 猴行者라고 하는 손오공의 전신을 중심으로 진행됨을 알 수 있다. 즉 『취경시화』의 上卷은 현장과 猴行者의 만남에서부터 猴行者가 가진 신통한 능력을 주로 묘사하고 있다. 눈 여겨 볼 점은 제3절에서 梵天王이 玄奘에게 하사한 세 가지 法寶인 '隱形帽'·'金鏁錫杖'·'鉢盂'이다. '隱形帽'는

15) '有詔不許. 諸人咸退, 唯法師不屈.', (唐) 慧立, 彦悰 著, 『大慈恩寺三藏法師傳』, 北京, 中華書局, 2000년, 10쪽.

16) 中國戲曲研究院編, 『中國古典戲曲論著集成二』에 수록된 鍾嗣成 『錄鬼簿』, 北京, 中國戲劇出版社, 1980년, 109쪽과 172쪽 참고.

www.kci.go.kr

모습을 숨기게 할 수 있는 모자이고, '金鐶錫杖' 금테 고리를 단 금속 지팡이다. 또 '鉢盂' 제5절에서 그 빛을 발산해 불을 끌 수 있는 도구로 묘사되고 있다. 이 세 가지 法寶는 梵天王이 玄奘에게 준 것으로 후에『서유기』에서 석가여래가 관음보살을 통해 玄奘에게 전해준 金襴袈裟・九環錫杖・緊箍兒와 계승 관계에 있는 法寶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목차		주요 내용
中卷	入九龍池處第七	아홉 머리를 가진 용을 만났으나 범천왕이 준 法寶로 물리친다.
	〔題原缺〕第八	深沙神을 만나 법사가 감화시키고 그의 도움으로 일행은 사막지역을 무사히 빠져 나간다.
	入鬼子母國處第九	말을 걸어도 전혀 대답을 하지 않는 3살 정도의 아이들만 가득한 곳을 지나가다 그곳 왕에게 물었더니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라고 알려 준다.
	經過女人國處第十	여인들만 사는 여인국에 들어가 여왕으로부터 결혼을 해서 함께 살자는 유혹을 받았으나 법사 일행은 유혹을 뿌리친다. 알고 보니 그 여왕은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변신하여 그를 시험한 것이었다.
	入王母池之處第十一	西王母가 살았다고 전해지는 곳 들어가자 猴行者가 예전에 이곳에서 西王母의 복숭아를 훔쳐 먹고 호된 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일행에게 얘기한다.
	入沉香國處第十二	기이하게 생긴 沉香이란 나무가 즐비하게 늘어선 곳을 지나가며 당나라에는 없다는 점을 얘기한다.
	入波羅國處第十三	미녀들과 행복해 보이는 아이들이 가득한 波羅國을 지나며 법사는 반드시 불경을 구해서 당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겠다고 다짐한다.

中卷에 해당하는 제7절에서 제13절까지는 深沙神이 등장하여 위기의 순간에 도움을 주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리고 女人國과 西王母가 살았다고 전해지는 지역을 거쳐 波羅國에 이르기까지 낯설고 기이한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가 뒤를 잇는다. 그 과정에서 현장은 비록 험난한 여정 속에 여러 가지 유혹과 두려움이 있지만 반드시 불경을 구해서 당나라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피력하고 있다. 中卷에서 비교적 눈여겨 볼 대목은 바로 제11절에서 西王母와 관련하여 猴行者가 그녀의 복숭아를 훔쳐 먹고 곤욕을 치렀다는 서술이다. 이 또한 후대에『서유기』의 서막을 장식하는 중요한 서사로 계승되고 있기 때문이다.

www.kci.go.kr

목차		주요 내용
下卷	入優鉢羅國處第十四	나무와 꽃들이 가득하며 장수하는 나라로 유명한 優鉢羅國을 지나며 西天이 멀지 않았음을 느낀다.
	入竺國度海之處第十五	마침내 竺國에 도착하여 많은 불경을 얻었으나 유독 『多心經』만 없었다.
	轉至香林寺受心經處第十六	香林寺에 가서 마침내 부처가 변신한 소년으로부터 『心經』을 받았는데, 이 경전을 가지고 당나라로 돌아가 황제에게 사원을 짓고 불법을 홍성하게 하라는 당부를 받는다.
	到陝西西王長者妻殺兒處第十七	孟氏 성을 가진 계모가 남편이 며칠 동안 장사를 떠난 틈을 타서 전처 아들을 수차례에 걸쳐 죽이려고 시도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마지막에 물에 빠뜨려 죽였고, 이를 슬퍼한 남편이 제단을 마련하고 공양을 올리는데, 법사 일행에게 대접한 물고기 속에서 전처의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대중들은 이를 보고 불교의 인연설에 감복을 한다. 끝으로 법사 일행이 당 황제에게 『般若心經』을 바치자 당 황제는 사원을 짓고 불법을 홍성시키고 법사에게 '三藏法師'의 호칭을 내린다. 마지막에 법사 일행은 부처의 예언대로 신선이 되어 서쪽 하늘로 날아가고 태종은 후에 猴行者에게 '銅筋鐵骨大聖'이란 호칭을 하사했다.

下卷에 해당하는 제14절부터 제17절에는 현장이 마침내 목적지인 天竺에 도착하여 우여곡절 끝에 『반야심경』을 손에 넣고 당나라로 돌아가 태종에게 바친 후 성불한다는 내용으로 끝을 맺고 있다. 특히 대단원인 제17절은 『취경시화』에서 가장 편폭이 긴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는데, 그 핵심내용은 불교의 인연설을 강조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취경시화』의 목차와 서사적 구성이 매우 유기적으로 짜여 있다는 사실이다. 즉 上卷에서는 현장이 서천으로 출발하는 시점으로부터 가장 유력한 조력자인 猴行者의 만남과 신통함을 주로 서술했다. 中卷에서는 낯선 지역과 기이한 경험을 중심으로 하되, 梵天王과 深沙神으로 대변되는 부차적 조력자들에 의해 어려움을 극복하며 서천으로의 取經에 대한 다짐을 더욱 강렬하게 다져나가는 과정을 서술했다. 그리고 下卷에서는 마침내 『반야심경』으로 상징되는 불경을 얻어 당나라로 돌아가 태종에게 바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다. 비록 『취경시화』의 전체 내용과 묘사는 매우 소략하고 질박하지만 큰 줄거리

www.kci.go.kr

와 구성은 원대의 잡극과 명대의 소설『서유기』에 그대로 계승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등장인물의 특징

『취경시화』에 등장하는 핵심적인 인물은 주인공에 해당하는 현장법사와 조력자에 해당하는 猴行者, 深沙神, 梵天王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의 길을 가로막는 악역으로써 蛇子・獅子・樹人・沉香 등 의인화된 동식물을 묘사했다. 그 밖에 여정 중에 유혹과 극복의 대상으로서 白虎精으로 상징되는 미녀와 西王母가 살던 지역의 복숭아 등을 묘사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미녀와 음식은 고대로부터 '飮食男女'라 하여 인간이 가진 본질적인 욕망을 상징한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중심인물에 해당하는 玄奘・猴行者・深沙神 세 인물이 지니는 특징과 의미를 원문의 인용문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1) 玄奘

『취경시화』에서 玄奘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이야기의 중심이며 특히 본문에서는 그의 불경에 대한 폭넓고 깊은 이해가 묘사되고 있다. 우선 본문에는 玄奘이라고 하는 그의 法名이 여러 곳에 보인다. 그리고 제목에는 三藏이라는 존칭을 사용하고 있다. 三藏은 불교 전적을 총칭하는 말로 全書와 유사한 뜻인데 크게 經藏・律藏・論藏으로 나눌 수 있고, 다시 小乘과 大乘으로 세분할 수 있다. 불교사에서 三藏은 불경에 두루 통달하는 승려에 대한 존칭으로 사용되었으며 唐代에 玄奘은 일반적으로 唐三藏이라 불리었다. 전체 원문에서 현장의 이러한 특징을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묘사는 다음과 같다.

> 나한이 물었다. "오늘 이렇게 저희 궁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사께서는 불경을 잘 강연할 수 있으신지요?" 현장이 말했다. "불경을 강연할 수 있으니 강연하지 않은 불경이 없습니다." 나한이 말했다. "『법화경』도 강연할 수 있으신지요?" 현장이 말했다. "그것은 사소한 일입니다." 그때 오백

www.kci.go.kr

> 존자와 범천왕 및 천여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모두 모여 불경 강연을 들었다. 현장이 단숨에 강연을 시작하니 마치 병에서 물이 흘러나오듯 현묘한 이치가 환하게 열리는 듯했다. 대중은 모두 정말 오묘하다고 칭찬해마지 않았다.[17]

玄奘은『법화경』을 비롯한 모든 불경을 강연할 수 있다고 했다. 사실 중국에서는 玄奘 이전에도 鳩摩羅什으로부터 여러 차례 불경 번역이 시도된 바 있다. 그러나 그러한 譯經들은 중국인들이 이해하기에 여전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으며, 원문의 정확성을 비교할 수 있는 불경이 절실하게 필요했다. 따라서 현장의 역사적 임무는 바로 인도로부터 정확한 불경 원전을 가져오는 것이었으며,『취경시화』에서도 역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玄奘은 중국불교사에서 불경 번역에 가장 큰 공을 세웠으며, 그로부터 중국적 특색을 지닌 이른바 格義佛教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猴行者

猴行者는『취경시화』에서 玄奘과 거의 대등한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이다. '猴'라는 한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인물은 원숭이를 의인화한 캐릭터이며 '行者'는 불교 용어로써 아직 출가하지 않은 채로 절에서 잡일을 하며 수행하는 사람이란 뜻이다. 猴行者라는 이름과 관련하여 100회본『서유기』제14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 "네 모습이 떠돌며 수행하는 승려와 비슷하니, 너에게 다시 별명을 하나 지어주마. '행자'라고 부르면 어떻겠느냐?" 그러자 오공이 말했어요. "좋습니다, 좋아요!" 이때부터 손오공을 孫行者라고 부르게 되었지요.[18]

---

17) 羅漢問曰 : "今日謝師入宮。師善講經否？" 玄奘曰 : "是經講得，無經不講。"羅漢曰 : "會講『法華經』否？" 玄奘 : 『此是小事。"當時五百尊者、大梵王，一千餘人，咸集聽經。玄奘一氣講說，如瓶注水，大開玄妙。眾皆稱讚不可思議。『취경시화』권3,「入大梵天王宮第三」.

18) 三藏懽喜道: "你這個模樣，就像那小頭陀一般，我與你再起個混名，稱爲行者好麼?" 悟空道: "好!好!好!" 自此時又稱爲孫行者. 吳承恩 著, 徐少知 校,『西遊記校注』제14회, 台北, 里仁書局, 1996년, 284쪽.

www.kci.go.kr

위의 인용문에서 孫行者가 猴行者를 직접적으로 계승함을 알 수 있다. 猴行者는 이야기의 전반부에 바로 출현하여 玄奘에게 다음과 같이 자신을 소개한다.

> 수재가 말했다. "스님은 생전에 두 차례나 불경을 가지러 가셨는데 중도에 재난을 당하셨죠. 이번에 가시게 되면 수없는 죽음의 고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법사가 말했다. "당신이 어떻게 아십니까?" 수재가 말했다. "저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화과산 자운동에 살며 팔만 사천 근의 청동 머리와 강철 이마를 가진 원숭이 왕입니다. 저는 지금 스님이 불경을 구하러 가시는 것을 돕기 위해 온 것입니다. 이번에 떠나시는 수백만 리 여정 중에 36개 나라를 지나면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법사가 대답했다. "과연 그러하다면 三世의 인연이 있는 것이니 동쪽 나라의 중생들에게 큰 이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19)

인용문에서 猴行者는 먼저 법사와의 필연적 인연을 언급하며 자신은 花果山 紫雲洞 출신이라고 소개한다. 紫雲洞은 훗날 『서유기』에서 水簾洞으로 변하는데 소위 '洞府'라고 하는 것은 도교에서 신선이 사는 곳을 의미한다. 宋元 話本에는 손오공의 또 다른 별호인 齊天大聖[20]을 물리친 인물이 紫陽眞人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의 별호가 바로 紫雲眞仙이다. 그런데 紫陽眞人은 본명이 張伯端으로 바로 道敎 南宗의 祖師로서 北宋의 內丹學을 집대성한 인물이며, 불교 禪宗의 영향을 받아 말년에는 불문에 귀의했다는 기록이 있다.[21] 이러한 사실로부터 『서유기』에서 왜 紫雲洞을 水簾洞으로 바꾸었는가에 대한 이유도 유추할 수 있다. 『취경시화』에서 猴行者는 玄奘이 불경을 성공적으로 가져오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조력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작품의 맨 끝부분에 唐 太宗은 그에게 '銅筋鐵骨大聖'

---

19) 秀才曰 : "和尚生前兩廻去取經, 中路遭難, 此廻若去, 千死萬死。" 法師雲 : "你如何得知？"秀才曰 : "我不是別人, 我是花果山紫雲洞八萬四千銅頭鐵額獼猴王。我今來助和尚取經。此去百萬程途, 經過三十六國, 多有禍難之處。" 法師應曰 : "果得如此, 三世有緣。東土眾生, 獲大利益。" 『취경시화』「行程遇猴行者處第二」.

20) 『淸平山堂話本』 卷三 「陳巡檢梅嶺失妻記」에 관련 내용이 보인다. 이 작품에서도 역시 원숭이 요괴가 등장하는데 申陽洞이라 불리는 동굴에 산다. 원숭이 요괴는 삼형제로 각각 通天大聖・彌天大聖・齊天大聖이라 불리는데, 그 가운데서도 제천대성의 능력이 가장 출중하다고 묘사되어 있다.

21) 任繼愈 主編, 『中國道敎史』,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97년, 503-512쪽 참고.

www.kci.go.kr

에 봉했다고 서술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大聖'이란 호칭은 이후 宋元 話本에서 齊天大聖으로 등장한다. 이로써 볼 때, 『취경시화』의 '銅筋鐵骨大聖'을 시작으로 화본과 잡극 등에서 齊天大聖으로 발전하며, 마침내 『서유기』에서 손오공 자신을 지칭하는 별호로 사용된 일련의 과정도 확인할 수 있다.

(3) 深沙神

『서유기』에서 사오정으로 등장하는 인물의 전신에 해당하는 深沙神에 대한 언급은 『취경시화』 상권 제3절에서 猴行者의 입으로부터 시작된다. 猴行者는 玄奘에게 그가 전생에 두 차례에 걸쳐 서천으로 불경을 구하러 가다가 深沙神에게 사로잡혀 생명을 잃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중권 제8절에서 深沙神과 관련된 이야기가 비교적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 深沙神이 말했어요. "내 목에 걸려 있는 것은 바로 법사가 내게 두 번 잡아먹혀서 해골목걸이로 만들어 차고 있는 것이다." 법사가 말했어요. "너는 무지하기 짝이 없구나. 만약 이번에 잘못을 고치지 않는다면 너희 가문을 전멸시키고 말겠다!" 심사신이 합장하고 감사를 드리며 엎드려서 자비를 구했어요. …… 저 멀리 양쪽이 은빛 선으로 된 金橋를 바라보니, 그것은 다름 아닌 심사신 무리였어요. 金橋는 길이가 무려 3장丈에 이르는 그들의 몸이었고, 은빛 선은 바로 그들이 떠받치고 있던 두 손이었지요. 그러자 스님 일행 7인은 곧 그가 몸으로 만든 金橋위로 지나갈 수 있었지요. 그들이 지나가자 심사신은 합장을 하며 배웅했어요. 양쪽 언덕의 심사신 무리들이 합장을 하고 예! 예! 하며 절을 올렸어요. 마침내 심사신이 다가오더니 시 한 수를 읊었어요. "깊은 모래사막 속에 내버려진 지 500년, 온 가족과 일족이 모두 재앙을 당했네. 金橋를 손으로 받들어 법사를 건네 드리니 이승의 신께 빌어 다시 태어나기를 비네." 법사가 시로 화답했어요. "두 번이나 너에게 먹혔다고 하여 해골을 가지고 그 자초지종을 물었네. 이제 너의 여생을 사면해주노니 동토로 돌아가면 그 공적을 두 번째로 쳐주겠네."[22]

22) "深沙云：'項下是和尚兩度被我喫你，袋得枯骨在此。"和尚曰："你最無知。此回若不改過，教你一門滅絕！"深沙合掌謝恩，伏蒙慈照。…… 遙望一道金橋，兩邊銀線，盡是深沙神，身長三丈，將兩手托定；師行七人，便從金橋上過。過了，深沙神合掌相送。法師曰："謝汝心力。我廻東土，奉答前恩。從今去更莫作罪。"兩岸骨肉，合掌頂禮，唱喏連聲。深沙前來解吟詩曰：

www.kci.go.kr

이 장면에서 가장 먼저 눈여겨 볼 점은 역시 玄奘과 深沙神 사이에 얽힌 전생의 인연이다. 그는 전생에 玄奘을 살해한 살인자로서 심지어 玄奘의 해골을 목걸이로 만들어 걸고 조롱한다. 가장 깊은 원수의 인연으로 다시 만났지만 그는 玄奘의 꾸짖음과 호통에 놀라며 玄奘이 무사히 사막을 건너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처럼 深沙神을 猴行者와 마찬가지로 玄奘과 필연적 인연으로 맺은 것은 불교의 인연설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여기서 深沙神이 사막에 내버려진 지 500년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또한 『서유기』에서 손오공이 五行山에 500년 동안 갇혀 있었다는 내용과 일치한다. 다만 深沙神은 玄奘을 서천까지 수행하지 않고 한 번의 도움으로 사막을 무사히 건널 수 있는 조력자로 묘사되어 있지만, 玄奘은 당나라로 돌아가면 그의 공적을 두 번째로 인정해주겠다고 할 만큼 중요한 인물로 설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나오는 말

본 논문에서 필자는 『대당삼장취경시화』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크게 형태와 내용 두 부분으로 나누어 이 책의 기본적인 성격을 알 수 있는 분석을 진행했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원서 제목에 보이는 '詩話'라는 단어가 여러 중국문학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문체로서의 '시화'와는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宋元 시기 話本 내에서 독립된 하나의 문체로 보는 것에 문제 제기를 했다. 필자는 『취경시화』의 표제어에 집착하여 하나의 문체로 볼 것이 아니라 중국 화본소설 전반에 나타나는 형식적 특징으로 나타나는 '韻散結合'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임을 주장했다.

둘째, 宋元 시기에 유행한 '說話四家' 가운데서 다수의 학자들이 주장하듯 『취경시화』는 '說經'에 속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반면 이 책의 성립 시기가 아무리

"一墮深沙五百春, 渾傢眷屬受災殃。金橋手託從師過, 乞薦幽神化却身。" 法師詩曰 : "兩度曾遭汝喫來, 更將枯骨問元才。而今赦汝殘生去, 東土專心次第排。" 『취경시화』 제8절.

www.kci.go.kr

늦어도 唐五代 시기에 속하기 때문에 '俗講變文'에 속할 뿐 宋元 시기에 유행한 '說話四家'의 분류에 넣어서는 안 된다는 李時人 등의 주장에 대해 반박을 했다. 필자는 특히 당시 『취옹담록』 등에 불교 관련 작품명이 수록되지 않게 된 원인을 宋代에 유교가 흥성하고 불교는 배척된 사상사적 배경에서 찾았고, 『취경시화』는 그 제재를 확장한 '說經'類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셋째, 내용면에서 『취경시화』의 서사적 구조를 초보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했다. 제1절부터 제6절에 이르는 上卷의 내용은 주로 玄奘과 猴行者의 필연적 조우와 더불어 梵天王으로부터 향후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세 가지 法寶를 하사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로써 앞으로 험난한 여정을 극복할 기본적인 조건이 마련되었음을 보여준다. 과연 猴行者는 신통한 능력 덕분에 일행은 蛇子國・獅子林・樹人國・大蛇嶺 등 사나운 짐승이 출몰하는 지역과 험준한 산림 지역을 무사히 빠져나간다. 제7절부터 제13절에 이르는 中卷의 내용은 梵天王으로부터 받은 法寶로 첫 번째 고난을 극복하게 되고, 이어서 역시 필연적 인연으로 深沙神을 만나 사막 지역을 무사히 빠져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주목할 점은 中卷에서 玄奘 일행이 마주한 고난은 주로 여인의 유혹과 관련된다는 것이다. 제14절에서 제17절에 이르는 下卷은 마침내 竺國에 도착하여 우여곡절을 거쳐 『반야심경』을 얻게 되는 과정을 묘사하고, 마지막에는 孟氏 이야기를 첨가해 불교의 인연설을 설파하고 있다.

넷째, 등장인물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서유기』에 나오는 중심인물 가운데 저팔계를 제외한 기본적인 캐릭터가 모두 구비되어 있었다. 특히 손오공과 사오정의 전신에 해당하는 猴行者와 深沙神의 등장에서 玄奘과의 만남이 불교적 세계관인 인연설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그밖에 석가여래의 전신에 해당하는 梵天王과 악역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白虎精의 출현, 또 西王母와 관련해 복숭아를 훔친 사건 등이 묘사되어 있는 사실로부터 『취경시화』는 『서유기』와 직접적으로 계승관계가 있는 최초의 문헌임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玄奘이 목적지에 도착해 얻은 불경 가운데 유독 『반야심경』이 집중적으로 서술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로 玄奘이라는 인물

www.kci.go.kr

을 전환점으로 놓고 볼 때, 중국의 불교는 후대로 갈수록 반야사상과 관음사상이 중심에 놓이게 되는데, 이것은 민간에서 주로 전파되었다고 볼 수 있는 『취경시화』에서 『서유기』로 이어지는 발전 과정과 거의 시대적 궤적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본다.

〈參考文獻〉

李時人, 蔡鏡浩 校注, 『大唐三藏取經詩話校注』, 北京, 中華書局, 1997.
玄奘, 辯機 原著, 季羨林 等 校注, 『大唐西域記』, 北京, 中華書局, 2000.
慧立, 彦悰 著, 『大慈恩寺三藏法師傳』, 北京, 中華書局, 2000.
吳承恩 原著, 徐少知 校注, 『西遊記校注』, 台北, 里仁書局, 1996.
孟元老 等著, 『東京夢華錄外四種』, 台北, 大立出版社, 1980.
中國戲曲硏究院編, 『中國古典戲曲論著集成二』, 北京, 中國戲劇出版社, 1980.
胡士瑩 著, 『話本小說概論』, 北京, 中華書局, 1980.
張錦池 著, 『西遊記考論』, 北京, 黑龍江敎育出版社, 1997.
周滿江, 張葆全 主編, 『宋代詩話選釋』, 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7.
나엽 지음, 이시찬 선역, 『醉翁談錄』, 서울,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1.
배형 지음, 최진아 풀어씀, 『전기』, 파주시, 푸른숲, 2006.
任繼愈 主編, 『中國道敎史』,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97.
洪楩 編輯, 石昌渝 校點, 『淸平山堂話本』, 江蘇, 江蘇古籍出版社, 1994.
張錦池, 「論沙和尙形象的演化」 『文學遺産』 第三期, 北京, 1996.
蔡鐵鷹, 「取經詩話的成書及故事系統」 『明淸小說硏究』 第五期, 南京, 1989.

〈Abstract〉

A Study of *Datang San Zang Buddhist Scriptures*

Lee, Si-Chan

This paper focuses on the narrative structure & content analysis of *Datang San*

www.kci.go.kr

Zang Buddhist Scriptures text. We can see the value and character of this book from this study. The first is mostly the morphologic theory associated with the format and genre of the epic tale. I have made a clear analysis of the difference between poetry as a style generally referred to in Chinese literature. And I analyzed where the '说经' belongs among the '说话四家' classified by the storytellers of the Song Dynasty. In particular, I argued my opinion on the problems raised by '李时人' '蔡镜浩' two scholars by referring to related papers and previous research.

Second, I attempted a structural analysis of how the narrative of this book evolved. This book consists of 17 chapters. Chapters 1 through 6 are mainly two characters, 'Monk Tang' and 'Monkey King'. And the story is that Monk Tang overcame his first tribulation with the help of Monkey King. The most notable of the chapters 7 to 13 is that 'Monk Sha' appears. 'Monk Sha' had an inevitable connection with 'Monk Tang' in his previous life. He had eaten Monk Tang in his previous life, and put on a necklace made of skulls. Chapters 14 through 17 primarily describe the process of the monk's arrival in India and obtaining Buddhist books. In particular, this novel emphasizes the process of obtaining the Original Text of 'Prajnaparamita-hrdaya-sutra'. I expect that the analysis in this paper will be a good reference for researchers especially in 'Journey to the West'.

Key words: *Datang San Zang Buddhist Scriptures*, Journey to the West, Xuan Zang, Monkey King, Monk Sha, Monk Tang, Buddhism.

이 논문은 2018년 4월 11일에 접수되어 2018년 5월 12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8년 5월 16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www.kci.go.kr

www.kci.go.kr